

대구주보

연중 제24주일

2015.9.13.(나해) 제1962호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피터 데 그레버,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엘리사」(1637).
캔버스에 유채, 프란스 할스 박물관, 네델란드.

† 오늘의 전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르 8,27-35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두 번 나누어 물으시는데, 먼저 사람들의 평판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와 스스로 믿는 바를 구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어라고 가르치십니까?

제1독서 이사 50,5-9ㄴ

제2독서 야고 2,14-18

복음 마르 8,27-35.

입당송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화답송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김영철 라우렌시오 신부 | 대해본당 주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 그리스도?

구약 열왕기 하권(5장 참조)은, 엘리사 예언자가 적국의 군대 장수 나아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그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하나, 엘리사 예언자는 사양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갔을 때 뒤쫓아 가서 거짓말을 하여 은 두 탈렌트와 예복 두 벌을 받아옵니다.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거짓을 고하는 종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옮겨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붙어 다닐 것이다.”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음에, “예언자라고 합니다.”하는 대답과 “그리스도이십니다.”하는 대답은 그렇게 구별되는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자도 그리스도도 다 하느님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지를 보면 확연히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립니다. 그저 하느님의 종으로써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수식어가 이 사실을 더욱 더 밝혀줍니다. 반면에, 게하지는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하고도 수고비 한 톨 안 받느냐? 몇 톨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세상 논리에서 한 발짝도 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준비해 온 엄청난 보상금(은 열 탈렌트(약 410Kg)와 금 육천 세켈(약 69Kg)과 예복 열 벌)을 보고 더 마음이 빼앗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욕은 위대한 예언자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도 꺾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언자? 그리스도?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분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 길 또는 저 길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만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게하지)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법게 여길 질문은 아니지요. **골로 2:3**

가톨릭 문화 산책

예리한 순진함

〈브라운 신부의 지혜〉 -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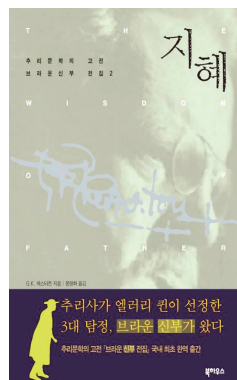


2013년의 BBC 드라마 '브라운 신부'
『해리 포터』에서 아서 위즐리로 분했던
마크 윌리엄즈가 브라운 신부 역할을 맡았다.

탐정소설 하면 애저서 크리스티의 포와로, 혹은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가 가장 유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학적인 향기가 높고 두고두고 큰 영향을 끼친 소설 속 탐정을 꼽으라면 G. K. 체스터튼(1874~1936)이 창조한 브라운 신부님을 들 수 있습니다. 체스터튼은 영국 태생의 평신도 신학자이자 철학자, 시인, 평론가, 호교론자로서 현대 가톨릭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또한 시골 본당의 주임 브라운 신부를 주인공으로 삼은 추리소설 52편을 썼습니다. 브라운 신부 연작은 아마 20세기 문학에서 베르나노스의 『시골 신부의 일기』, 과레스키의 『돈 카밀로』와 함께 신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일 것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등장하는 소설은 모두 중·단편으로, 체스터튼의 장기인 아이러니와 절묘한 반전이 매력입니다. 흔히 접하는 소설 속 탐정들의 이미지와 달리 땅딸막하고 못생긴 브라운 신부님은 순진하고 심지어 좀 어리숙하기까지 한 인물입니다. 그는 정밀한 추리로 사건의 앞뒤를 재구성하기보다 범인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어째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합니다. 이 마음씨 고운 신부님은 약간 멍해 보이지만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통찰하는 날카로운 지혜로 독자를 놀라게 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지만, 브라운 신부의 방법은 '영혼의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들은 재치에 웃고 반전에 놀라다가 마지막에는 브라운 신부의 동정심과 순수함에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사색에 빠져들고 맙니다.

사람이 착하면 똑똑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판단은 착한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법입니다. **필문**



G. K. 체스터튼의 『브라운 신부』 연작은 그 일부가 국내에 번역되어 있으며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달의 성인

성녀 힐데가르트

(수녀원장, 신비가, 교회학자. 1098~1179년. 축일 : 9월 17일)



현재까지 가톨릭교회 안에는 33분의 성인께서 교회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서른세 분 가운데 여성은 세 분 뿐이었는데, 아빌

라의 성녀 테레사(예수의 성녀 테레사, 또는 대테레사라고도 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그리고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소화 테레사)가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 10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독일 빙엔의 힐데가르트 수녀를 성인 품에 올리시고 네 번째 여성 교회박사로 선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문맹이었던 중세에 힐데가르트 성녀는 신학자이자 신비가였으며 시인, 극작가, 과학자, 사회비평가, 화가였고 작곡도 하셨습니다. 독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신 성녀께서는 8세 때 베네딕토 수도원에 위탁되어 자라셨는데 14세에 수도서원을 했으며 38세에 수녀원장이 되셨습니다. 43세 때는 신비한 영적체험을 하신 후 신비가로서의 소명을 발견하셨습니다. 훗날 남성 중심의 수도원에서

독립해 빙엔에 수녀들만을 위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생을 마치셨기에 ‘빙엔의 힐데가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중세의 가장 뛰어난 여성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동시에 독일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46위에 올라 있는 성녀께서는 문학, 의학, 음악 등 다방면에서 ‘최초’가 되신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뛰어난 재능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바치셨고 명성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녀의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녀께서는 또 한 당시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와 잘못된 삶에 대해 경고하시고 쇄신과 개혁을 촉구한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81세로 선종하시기까지 신학과 영성에 대한 저술 외에도 77편의 시와 노래, 36점의 그림, 광물치료와 자연요법에 관한 서적들과 3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2009년 독일에서는 성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위대한 계시』가 제작되었는데 이 영화는 201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녀에 관한 책들과 성녀의 음악을 담은 음반도 발매되어 시종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공동선을 실천한 뉴욕의 마더 데레사



“우리 모두 조금 가난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제 어머니께서는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덜 가지면 한 사람 몫이 더 나온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항상 한 사람 몫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1976년 미국 필라델피아 세계성체대회 강연 중)

‘가난한 이웃과 힘없는 노동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도로시 데이(Dorothy Day 1897~1980)는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가톨릭 신자 10명에 뽑힐 정도로 존경받는 미국의 가톨릭 사회운동가입니다.

급진적 사회주의자로 여성해방과 자유연애를 부르짖던 도로시 데이는 가톨릭에 귀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당시 사회문제와 결부시킬 방법을 찾던 중 월간지 <가톨릭 노동자>를 창

간하여 부조리한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웠고,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을 때 전쟁과 징집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각종 시위에 참석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다가 수차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의 극심한 경제공황 시기에 뉴욕에다 집 없는 사람과 굶주린 이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안식처로 ‘환대의 집’을 열었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 3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980년 11월,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중에는 장례비용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떠난 3년 뒤 1983년 시성절차가 시작되어 ‘하느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2012년 11월 13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개최한 미국 천주교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는 도로시 데이의 성인 품 추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9월 13일	성 마우릴리오(주교, 양제, 453년), 성 베네리오(은수자, 7세기) 성 아마토(주교, 시옹, 690년), 성 에울로지오(주교, 알렉산드리아, 608년)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총대주교, 교회학자, 교부, 콘스탄티노플, 344~407년)
9월 14일	성녀 노트부르가(하녀, 티롤, 1265~1313년), 성 마테르노(베드로의 제자, 주교, 쾰른) 성 크레센시오(소년, 순교자, 로마, 300년)
9월 15일	성녀 가타리나(과부, 신비가, 제노바, 1447~1510년), 성 니코메데(신부, 순교자, 로마) 성 멜리티나(순교자, 마르키아노폴리스, 2세기), 성 레오비노(주교, 샤프트르, 558년경)
9월 16일	성 고르넬리오(교황, 순교자, 253년), 성 치프리아노(주교, 교부, 순교자, 카르타고, 200~258년) 성녀 에디타(공주, 수녀, 윌튼, 961~984년), 성녀 에우페미아(동정 순교자, 307년)
9월 17일	성녀 골롬바(동정 순교자, 코르도바, 853년), 성 소크라테스(순교자) 성 람베르토(주교, 순교자, 마스트리히트, 635~705년), 성녀 아리아드나(노예, 순교자, 130년) 성녀 힐데가르트(수녀원장, 신비가, 교회학자, 빙엔, 1098~1179년)
9월 18일	성녀 리카르다(황후, 895년경), 성녀 이레네(순교자, 200년경) 성녀 소피아(순교자, 200년경), 성 요셉(신부, 신비가, 쿠파르티노, 1603~1663년)
9월 19일	성 야누아리오(주교, 순교자, 베네벤토, 305년경), 성 테오도로(주교, 캔터베리, 602~690년) 성녀 에밀리아(설립자, 로다트, 1787~1852년), 성녀 콘스탄시아(순교자, 1세기)



■ 관덕정 순교자현양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9월 5일(토) 오후 5시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순교자현양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 <빛>

■ 대안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견진성사



대주교님께서는 9월 6일(일) 오전 11시 대안성당에서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하시고 114명의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거행하셨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37주간, 2015.9.13~9.19.>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에제12-14장	15-18장	19-21장	22-24장	25-28장	29-32장	33-36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에제키엘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의 신탁과 더불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고 백성이 징벌을 받은 다음에 하느님께서 유배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라는 구원과 희망의 신탁도 전한다. 하지만 유배가 회개를 위한 계기라고 생각한 예레미야 예언자와는 달리 에제키엘 예언자는 유배자들의 귀환이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첫째 부분(1-24장) :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 둘째 부분(25-32장) : 이스라엘의 원수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 셋째 부분(33-48장) : 유배자들에게 보내는 구원의 말씀.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고통이 있는 이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9월 성소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30 범여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9월 19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9월 19일(토) 11:00 성모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	—

성소 | 피정

마리아 영성 피정(성체 헌시, 미사, 안수)

일시: 9.16(수) 13:00~16:30

10.21(수) 13:00~16:30

지도: 강요셉 신부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성심교육관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9.18(금) 23:00~20(일) 15:00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차량: 시민회관 16:00 출발

주최: 파티마의성모프란치스코수녀회

문의: 이카타리나, (010)4515-1114

제주 자연 피정

기간: 10.2~5(금~월) / 10.7~10(수~토)

10.14~17(수~토) / 10.19~22(월~목)

10.25~28(일~수) / 11.1~4(일~수)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 기도회

일시: 매주(화) 23:00~(수) 4:00

운영: 현대미래물 20:30

수성구청 앞 21:00

문의: 김명옥, (010)5529-3186

아씨시수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일자: 9.20(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여성

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문의: 최젼마 수녀, (010)6272-7165

하루 나를 찾는 에니어그램

일자: 10.9(금), 10.10(토)

대상: 남녀청년(단체 환영)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신청: (010)2649-2045

스칼라중창단 모집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우애관

내용: 발성, 찬양, 전례

대상: 남녀 청년(오디션)

신청: (010)9056-9005

18회 대학생 해외 영어연수-해외봉사

국가: 필리핀, 캐나다

기간: 3차 10.3(토), 8주 이상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인증서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이상재 신부와 함께하는 크루즈 순례

기간: 11.5(목)~18(수),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경비: 내측 538만 원부터

문의: 가톨릭신문사, (02)2281-9070

가톨릭상지대 2016년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모집: 수시 1차, 9.2(수)~24(목)

문의: 입학홍보팀, (054)851-3021

<http://ipsi.csj.ac.kr>

제주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라인피부과

피부와 전문의 | 원장 원 종 훈 (바오로)

주요 진료: 아토피 | 알레르기 | 시마귀 | 티눈 | 건선 | 무좀

피부질환: 여드름 | 흉터 | 기미 | 갈티 | 모공 | 보톡스 | 필러 | 비만

대명동 한영유니존빌딩 3층 (구.달성구청)

1호선 성남역 3번출구 T. 053) 651-8800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동 새마을금고 옆

신매역 3번 출구 (천주성삼병원 방향)

김 경 임 (아 네 스)

분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 현 철 (베네딕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이스라엘, 요르단

(12박 13일)

출발일: 2016년 1월 19일 출발

T. (053)253-3399

조 철 래(유스티노)

홍 미 희(안젤라)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크업 · 헤어디자인

김 대 현 (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新대구정신과

New Daegu psychiatric clinic

불면증, 갱년기 우울증, 불안, 치매

식사장애(거식증, 폭식증), 비만, 스트레스

원장 · 전문의 김 정 윤 (라파엘)

지하철 2호선 감삼역 2번 출구 앞

T. 053)566-0364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이문희 대주교님 사제서품 금경축

일시: 9.14(월) 10:30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행사 | 모임

9월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9.20(일) 14:00
1~3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노인의 날 행사

일시: 10.3(토) 11:00~16:00
장소: 성모당 일대
대상: 본당 65세 이상 어르신
회비: 1천 원(중식 제공)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교육 | 모집

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기간: 10.17~11.15(매주 토) 5주간
5주차 1박 2일 가족 피정
장소: 2대리구 상동성당 / 15만 원
대상: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아버지
주관: 교구 가정담당, 250-3114

9월 가나 강좌

일시: 9.20(일) 10:00~17:30(9:30 접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비용: 2만 원, 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담당, 641-5678

시편성가, 발성법 연수

일시: 9.13(일) 15:00 / 회비: 1만 원
지도: 김정선 수녀, 박재연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관덕정 주관 10월 성지 순례

일자: 10.18(일), 대전교구 공세리성당
신청: 9.16(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새빛학교 기초영어, 한문반 모집

기초영어: 매주 화, 목 13:00
기초한문: 매주 화 15:00
문의: 476-3100(1호선 교대역)

대구시립희망원 치과진료 봉사자 모집

일시: 매주 월~금요일 중 가능한 시간
내용: 희망원 생활인 치료, 보철진료
대상: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631-5985 / (010)3810-9859

국비지원 무시험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주간반 40명: 개강 10.10~종강 12.5
교육: 월~금 10:00~16:30(2개월 단기반)
대상: 65세 미만 / 학력, 남녀 무관
특전: 교육비 국비지원(식비, 차비 추가)
문의: 대가대장례지도사교육원, 555-440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강좌

일시: 9.23(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테레사)관 3층 테레사홀
주제: 통풍의 이해와 관리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윤 교수

채용 | 안내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및 주소변경 신고 안내

2006.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연고자께서는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으며,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딸서원 개원 일시 변경

실시: 10월 부터
개원: 주일 12:30~19:30
휴무: 월요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추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에플비노기과
www.appleuro.com
비노기과 전문의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0-3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 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구연세안과
아이디디자인·렌즈삽입술·노안수술·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 053)626-8881~5

코리아알트만
결혼영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틀리아)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터리어 건물 4층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2번 출구
국민은행 옆 KCC 인터리어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